

# 국어의 운율구조

한 선 회  
(대림전문대학)

## 1. 머릿말

본 논문에서는 의존음운론 (Dependency Phonology)의 이론 틀 속에서 초분절 음운론적 단위들을 설정함으로써 국어의 운율 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즉, 어휘적으로 성조가 주어지는 최소 단위인 음절(syllable)에서 시작하여, 기저 성조가 지닌 돌출성(prominence)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음보(foot), 음운단어(phonological word), 음운구(phonological phrase), 억양구(intonational phrase) 및 발화구(utterance)에까지 이르는 운율적 단위들을 설정한다. 여기서는 최근의 여러 연구들에서 사용한 운율음운론(prosodic phonology)적 방법론 외에 보다 자연스럽고 체계적인 음운론적 단위짓기를 위해 Anderson & Ewen(1986)이 제안한 의존음운론적 방법론을 도입하여 이것이 국어의 운율 체계의 연구에 훌륭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의존음운론에서는 초분절적 운율 구조에 대해 구성관계(constituency)와 상대적 돌출립(relative prominence)관계를 동시에 정해주는 표시를 사용하며, 그 운율적 구조는 각 음운론적 단위들이 그 상위에 있는 음운론적 단위와 연결되는 관계로 표시된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구성소들간의 의존관계(dependency)인데, 이것은 중심요소(head)와 수식요소(modifier)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심요소는 음운론적 각 단위에서 돌출리는(prominent) 부분으로서 운율적으로 다른 수식요소들에 비해 강하다. 본 논문에서는 억양구 이하의 모든 운율 단위들의 구성소들간에 이 관계가 체계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인다. 결국 구성소들의 관계와 함께 음 연쇄의 상대적인 돌출립을 표시함으로써 모든 필요한 정보를 그 구조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언어학적 일반성을 포착할 수 있게 해 주는 의존음운론적 방법론이, 보다 적절한 음운표시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 최근의 비단선(nonlinear) 음운이론 중 하나로서 국어 운율 구조 수립에 훌륭히 이용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아래 2절에서는 의존음운론의 기본 이론에 근거하여 경북방언의 운율 구조를 단계적으로 세워나갈 것이다. 3절에서는 몇 가지 특징적인 리듬 및 억양 규칙들을 논의하고 이들 운율법칙들이 리듬의 단위인 음운단어와 음운구, 또 억양의 단위인 억양구에 대한 음운론적 동기를 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음운 현상들임을 보일 것이다.

## 2. 국어의 운율구조 수립

여기서는 초분절음적 단위 구조들 사이에 걸려 있는 의존(dependency)이라는 구조적 관계를 중심으로 경북방언의 운율구조를 단계적으로 수립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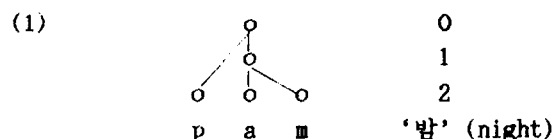
이 논문의 대상 방언은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경북지방의 방언이다. 이 방언은 현대 각 방언의 비교와 중세 국어와의 관계를 밝히는 데 귀중한 가치를 지녔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초분절 음운론적 자질인 고저와 장단을 지녔으므로 비단선 음운론적 연구에서 중요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본 논문은 경북방언에서 고저액센트(pitch

accent)가 연속된 음의 상대적 돌출됨(relative prominence)을 결정짓는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고성조(H)와 저성조(L)의 차이가 절대적인 높이의 정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앞뒤 음절을 비교한 상대적인 높이로 결정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고성조를 지닌 음절에는 ‘타입’, 혹은 ‘돌출’, 즉 평이한 것의 반대라는 의미로서 [prominence]의 자질이 주어진다고 본다.” 참고로, 서울말에 대해서는 고저 액센트가 아니라 강세 액센트가 말토막의 어느 한 음절에 놓인다고 주장한 종래의 연구들이 다수 있다. (이현복 1974, 이 승녕 1955 등).

자립분절음운론에 의해 이 방언의 성조를 다룬 Kim, G-R.(1988), 및 줄고(1990)에서는 Pulleyblank (1986) 식의 선연결(prelinking)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즉, 이 방언에는 성조소지단위(tone bearing unit)인 모음에 이미 어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성조(H)가 있으며, 이 고성조들만이 어휘부 내의 음운규칙에 참여하고, 후어휘부 규칙인 부재자질성조 삽입규칙(Default L-Insertion Rule)에 의해 저성조가 성조소지단위에 삽입된다고 가정한다.

이제 높낮이 액센트가 변별적 기능을 하는 경복방언에 음절, 음보, 음운단어, 음운구, 억양구 등이 차례대로 적절한 구성소임을 보이고, 이 방언의 성조 변동 현상들과 관련해서 보다 상세하게 연속적인 구조적 형태를 세워 나가겠다.

대부분의 언어에서처럼 국어에서도 핵음(nucleus)은 의무적인 요소이며, 성절적(syllabic) 분절음이 반드시 필요하나, 음절 두음(onset)과 말음(coda)은 선택적이다. 또한 핵은 주변 자음들보다 훨씬 돌출적(prominent)이다. 그러므로 각운(rhyme)은 그 중심요소가 핵음이며 오른쪽에 수식요소로서 말음이 있는 우수식구조(right-modified structure)이다. 핵음의 왼쪽에는 각운의 수식요소인 두음이 있으므로 음절은 좌수식구조(left-modified structure)이다. 그렇다면 각운과 음절의 가장 돌출한 형태인 중심요소는 동일한 분절음이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수식의 방향과 포함단계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위치일 뿐이다. 이상은 다음과 같은 의존 나무꼴로 나타난다.



여기서 /m/은 /a/₁에, 또 /p/는 /a/₀에 인접(adjoin)되었다고 하고, /a/₁은 /a/₀에 부속(subjoin)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a/₁은 /m/을 지배하며 /p/뒤에 오고 /a/₀은

1. Crystal 은 그의 언어학-음성학 사전에서 돌출됨(promonence)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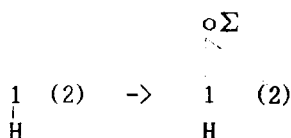
prominence : A term used in auditory phonetics to refer to the degree to which a sound or a syllable stands out from others in its environment. Variations in length, pitch, stress, inherent sonority are all factors which contribute to the relative prominence of a unit.  
(Crystal 1985:248)

이 정의에 따르면 경복 방언의 높낮이는 충분히 단위음의 돌출됨을 결정지어 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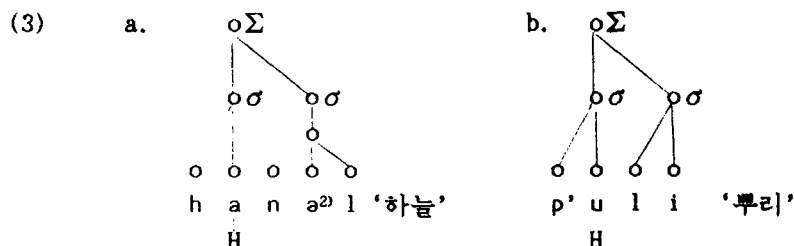
/a/₁을 지배하지만 앞서지는 않으며, /m/은 /a/o에 지배받으며 그 뒤에 온다. 결국 이 음절은 /a/o가 중심요소가 되는 좌수식구조이며 각운은 /a/₁이 중심요소가 되는 우수식구조이다.

음절들은 그 다음 구조인 음보(foot)로 묶어진다. 이 음보는 고성조의 투사(projection)로 이루어지며 운율적 조직의 기본적인 단위이다. 본 논문은 성조로서 음의 상대적 돌출이 뚜렷이 감지되는 경북방언의 운율적 범주로서 음보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경북방언의 음보구조는 다음과 같이 세워진다고 본다.

## (2) 음보구성 (Foot Formation)



즉, 이미 연결되어 있는 H에 근거하여, 각 음보는 H가 달린 성절음을 포함하는 음절에서 시작하여 그 오른쪽의 음절로 묶어진다. 그러므로 음보구조는 우수식(right-modified) 구조이다. 이 때, 그 H가 달린 성절음과 이를 포함하는 음절은 각각의 그 위의 구조에서 중심요소(head)가 된다. 이 중심요소는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 음보 내의 어떤 다른 성절음보다 더 돌출해 있다. 사실상 율격음운론(metrical phonology)의 목표는 돌출층에 관한 모든 정보를 나무에 부호화(encode)하는 것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율격음운론자들이 세운 강세음보와 동일한 개념으로 음보를 정의한다. 즉, 음보는 왼쪽이 중심요소가 되는 좌중심적(left-headed) 구조이다. 이로써 각 음보내 음절의 상대적 돌출됨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것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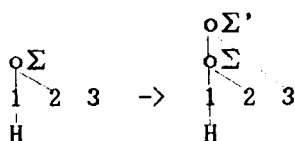


여기서 /hanal/의 /a/ 및 /p'uli/의 /u/는 위로 올라 가면서 계속 음절 및 음보의 중심요소가 된다. 즉, 이들의 첫음절은 고성조를 지녔으므로 음보의 중심요소가 되어야 하고, 두번째 음절은 그렇지 않으므로 동일한 음보의 요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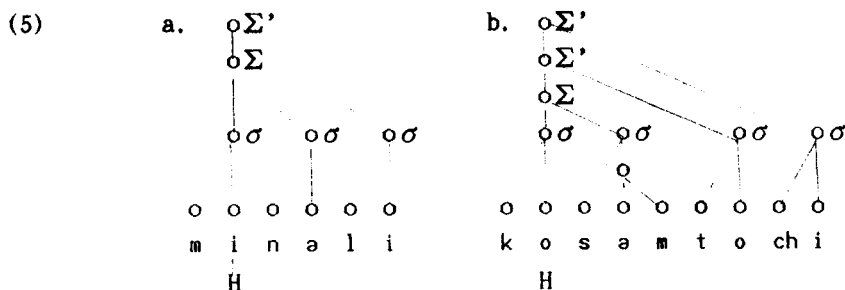
그러나 이미 연결된 H를 근거로 세워진 음보 구성 (2) 외에, 음보에서 제외되어 오른쪽에 남아 있는 음절들을 음보 속에 반복적으로(iteratively) 수용하는 초음보 구성(superfoot formation)의 단계가 있어야 한다(Selkirk 1980).

## (4) 초음보 구성 (Superfoot 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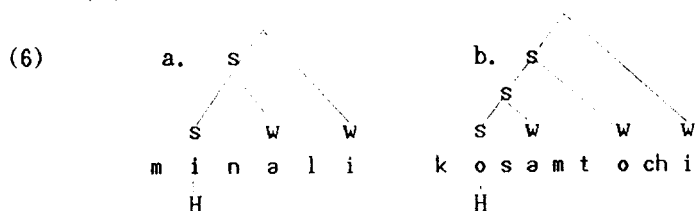
2. 경북방언의 모음체계에는 /i/와/a/, 및 /e/와/ε/ 사이의 구별이 없으므로 전자는 /a/로 후자는 /ε/로 표기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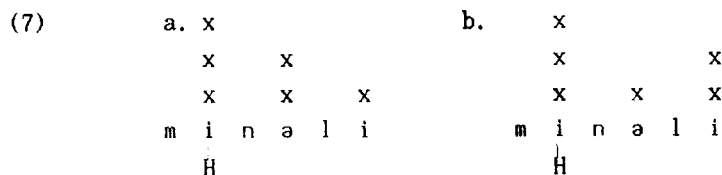
따라서 /minali/ ‘며느리’와 /kósamtochi/ ‘고슴도치’의 초분절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즉, 이 단어에서 가장 강한 음절은 음보의 중심요소이다. 이것을 울격 음운론적인 구조로 나타내면 아래 (6)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나무꼴 구조에서는 그 상대적 돌출됨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6a)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해석을 가진다.



즉, 하나의 나무꼴이 두 개의 격자 해석을 낳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5)와 같은 의존 구조에서는 이러한 애매성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표시들은 중심요소가 되는 부분들을 지배관계로 보여줌으로써 울격음운론에서 사용하는 s, w 등의 표시가 없이도 상대적 돌출관계를 애매성 없이 포착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이와 같은 음보구조는 이분지(binary)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음보 뿐 아니라 음절 및 음운단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Anderson(1986:125)이 제안한 “단일 딸 조건”(Single Daughter Condition)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어떤 중심요소에 인접(adijoin)될 수 있는 수식요소는 항상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휘적 단계를 지나 음운구, 억양구, 및 발화구의 단계에 이르면 다분지(non-binary)일 수도 있다.

이 경북방언에서 H 성조의 [prominence]를 근거로 하여 설정한 음보가 국어의 음운론적 단위가 될 수 있음을 보이는 몇 가지 음운과정을 보이고자 한다. 그것은 같은 환경을 공유하는 음운과정들이 있다는 것은 그 구성소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첫째로 유성음간(intervocalic) 위치에서 적용되는 h-탈락 현상을 보자.

- (8) a. /ahan/ 아흔 [a<sup>H</sup>ən], /mahan/ 마흔 [ma<sup>H</sup>ən]  
           H                  HL          H                  HL  
       /ɪlhan/ 일흔 [ɪ<sup>H</sup>rən], /sálhan/ 설흔 [sá<sup>H</sup>rən]  
       /móham/ 모험 [mó<sup>H</sup>əm], /kyágham/ 경험 [kyá<sup>H</sup>gəm]  
   b. /juheg/ 유행 [ju<sup>H</sup>heg], \*[ju<sup>H</sup>eg], /mehyag/ 매형 [me<sup>H</sup>hyag] \*[me<sup>H</sup>yag]  
           H                  L H                  LH                  H                  L H                  L H  
       /juhyág/유행 [ju<sup>H</sup>yág], \*[ju<sup>H</sup>yág], /ahág/ 어항 [a<sup>H</sup>hág] \*[a<sup>H</sup>ág]

위에서 h-탈락이 일어나는 a의 예들은 모두 기저의 고성조로부터 비롯되는 음보로 묶여져 'h'가 음보 내(foot-internal) 위치에 있게 되고, 반면에 h-탈락이 일어나지 않는 b의 예들은 모두 두번째 음절에 고성조로 인한 돌돌림이 있어 그 자체가 음보를 구성하므로 'h'가 음보초(foot-initial) 위치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경북방언에서는 이 h-탈락이 단순한 유성음간 규칙이라기 보다는 단어보다는 작은 단위, 곧 음보를 그 환경에 명시하는 규칙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영어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있다. '[prohi][bition]'과 'pro[hibit]'에서 두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어 그 'h'가 독자적인 음보의 시작이 되는 후자의 경우 h-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두번째로, 기저의 고성조에서 비롯되는 음운단위인 음보를 적용 영역으로 삼는 또 다른 음운 현상들이 있다. 다음 예들에서 보듯, 경북방언에는 음라우트와 비음화가 그의 대부분 고성조를 지닌 음절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수립되는 음보의 시작부분에서 일어난다는 흥미로운 사실이 관찰된다.

- (9) a. /komphagi/ 곱팡이 [kom<sup>H</sup>phɛgi]-[kom<sup>H</sup>peɪ], /montugi/ 몽둥이 [mon<sup>H</sup>di:]  
           H                  L H L          L HL          H                  L HL  
       /cukita/ 죽이다 [cu<sup>H</sup>wigida], /paskita/ 벗기다 [pet<sup>H</sup>k'ida]  
           H                  H L L          H                  H L L  
   b. /palphita/ 밭히다 \*[pe<sup>H</sup>lphida], /metallida/ 매달리다 \*[me<sup>H</sup>deɪlida]  
           H                  L H L          H                  L L H 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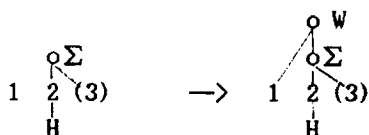
이 현상은 경북방언에서 아주 생산적이다. (몽둥이-> 몽디:, 두루마기-> 두루미기, 떠느리-> 미느리, 웃기다-> 윗기다, 속이다-> 석이다 등). 그러므로 상대적 돌돌림을 결정지어주는 음보는 그 첫 위치에서만 일어나는 이러한 음운현상들로 인해 그 독립적인 구성소로서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로, 방언화자들이 외래어를 발음할 때에 강세 패턴을 변형시키는 것을 보자. 다음 단어들에서 보듯이 방언화자들의 발음에서는 원래의 단어 강세와는 달리 모두 끝에서 두번째 음절에 강세가 얹힌다. 이것은 오른쪽으로 가지를 치는 안정성있는 음보의 핵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언화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액센트를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에 소개하는 예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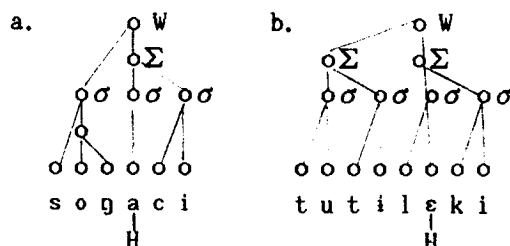
- (10) radio [radío] '라디오' Uruguay [uruguwái] '우루과이'  
helicopter[helikópta] '헬리콥터' amateur [amachjúə] '아마추어'

이제 다시 운율 구조 형성 과정에 되돌아 가서, 음보보다 상위 단위인 음운단어(phonological word, 혹은 P-Word)를 세워 보자. 음운단어는 음보와 같은 원리로 구성되나 그 수식의 방향은 반대가 되며 음보보다 포괄적이다. 즉, 음운단어 내에서 가장 오른쪽 음보의 중심요소가 바로 그 음운단어의 중심요소이다. 따라서 음운단어의 중심요소는 좌수식(left-modified)의 형태이다. 아래 (11)은 음운단어의 구성을 보인 것이고, (12)는 이에 근거하여 단어들의 초분절구조를 예시한 것이다. 이 음운단어의 구조도 음보와 마찬가지로 이분지이다.

(11) 음운단어 구성 (P-Word Formation)



(12)



여기서 음보구성 이후에 초음보구성이 있었듯이 초음운단어구성(Super P-word formation)이 있다. 이것은 음운단어들의 결합인 복합어를 다룰 때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 음운단어까지는 어휘부(lexical) 음운부에서 수립되는 것으로 다음에 이어 다룰 후어휘부(postlexical) 음운구조 수립과는 그 제약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선 지금까지 세운 음운 구조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위 (12)a의 예를 가지고 요약한다면, 이 구조에서 분절음 위의 마디들의 수는 그 분절음이 중심요소 역할을 몇 번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즉 /soḡáci/의 /a/는 그 음절, 음보 및 음운단어(P-Word)의 머리가 되는 것이다. 위에서는 편의상 각운, 음보, 음운단어 등의 운율적 범주를 명시했지만, 중심요소와의 의존관계 및 그 연쇄관계를 보면 그 운율적 범주는 저절로 드러난다. 이를테면 음운단어의 중심요소인 분절음은 음보를 지배하며, 음보의 중심요소는 음절을 지배하고, 또 음절의 중심요소는 각운을 지배한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Selkirk(1980) 등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음운론적 범주 표시가 잉여적이라는 것이다. 즉, 각 구조들은 의무적인 것이어서 음보 속에는 적어도 음절 하나가 있으며, 음운단어 속에는 적어도 하나의 음보가 있으므로 그 구조 형태의 구별은 정해진 위계에서의 위치만 보면 저절로 알게 된다. 이렇듯 의존관계로 그려진 나무꼴은 율격 음운론에서 운율적 격자(grid)나 나무(tree)로 나타내는 정보를 모두 지니고 있다. 즉 단위로의 묶음(grouping)으로 그 구성관계를 보여주고 그 세기의 관계는 의존 나무꼴 속에 포함되어 있다. 또, 각 구조의 중심요소는 구별적인 수식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음운단어의 중심요소(head)는 수식요소(modifier)를 왼쪽에 두고 있고, 음보의 중심요소는 수식요소를 오른쪽에 두고 있다. 이 특징은 음절 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음절의 중심요소는 그 수식요소를 왼쪽에 두고 있고, 각운의 중심요소의 수식요소는 오른쪽에 있다. 이로써 각 구조 형태는 정해진 계층적 위치와 또 특징적인 수식의 방향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정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음운단어들은 모여서 음운구(phonological phrase, 혹은 P-Phrase)가 된다. 음운구의 중심요소와 음운단어의 중심요소에 걸쳐 있는 의존 관계는 음운단어의 중심요소와 음보의 중심요소 사이와의 관계와 같다. 음운구 구성에 대해서는 운율음운론적 접근을 시도한 Kim, G-R.(1988)의 제안 대로, 음운단어가 최대투사구(maximal projection) XP의 중심요소인 경우 그 바로 앞 음운단어를 포함하는 것으로, 또 초점이 주어진 음운단어는 새로운 음운구를 시작하여 최대투사구 내에서 후속 음운단어와 결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것을 의존음운론적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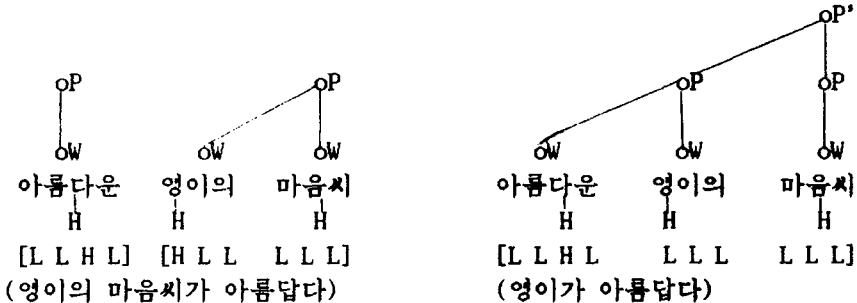
(13) 음운구 구성 (P-Phrase Formation)



(단, 2는 1,2를 지배하는 XP의 중심요소) (단, 1,2는 동일 XP내에 있을 것)

여기서 위 2)에서처럼 특히 초점과 관련해서 음운구를 다룰 때에는 반드시 휴지(pause)를 언급해야 한다. 그것은 초점을 부여하여 그 단어를 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는 그 준비과정으로서 심리적인 휴지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초점과 휴지를 고려한 음운구 구성은 통사구조와는 무관하게 된다. 그래서 (13)의 2)는 통사적으로 제약받은 1)과는 달리 오른쪽으로의 가지치기로 나타난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초점, 말의 속도, 및 말씨 등 언어수행(performance)적 요소가 가미되며, 이에 따라 어휘부에서 엄격하게 지켜졌던 이분지와 방향성의 제약이 어겨지기 시작한다. 다음은 음운구 구성에 의해 대립되는 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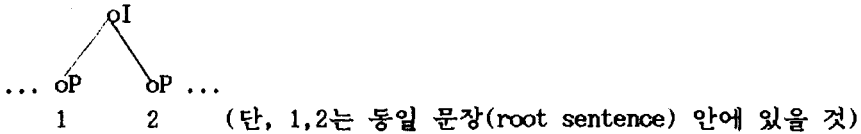
(14)



음운구 사이의 경계에는 초점이 주어진 곳이 아닐지라도 음운단어 경계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휴지가 있고 높낮이 연결의 끊김이 있다. 이 음운구에서 실현되는 높낮이 형태로 리듬이 만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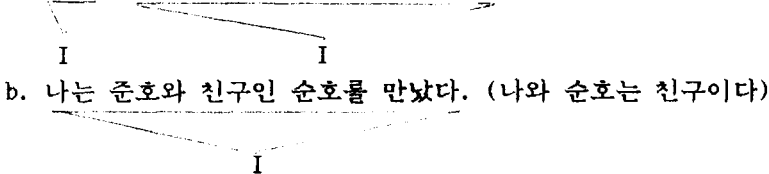
음운구들의 연결은 억양구(intonational phrase, 혹은 I-Phrase)를 만든다. 즉, 음운구의 높낮이 형태의 연결로 여러 다른 억양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억양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15) 억양구 구성 (I-Phrase 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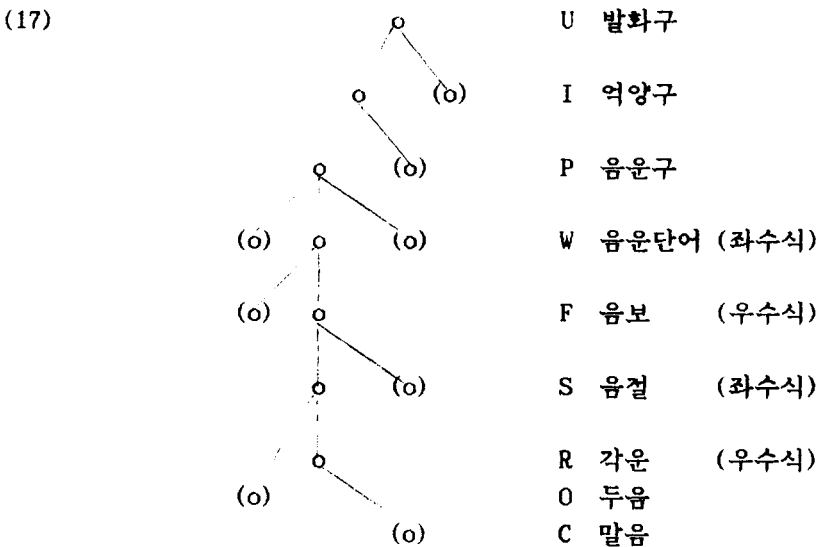
억양구의 경계에는 음운구 경계에서보다 훨씬 뚜렷한 휴지가 있고 그 경계를 단위로 독립된 억양의 형태가 얹힌다. (15)에서 조건지었듯이 화제어, 호격, 도치어, 관계사절과 같은 매입문, 등위절 등이 끼어 있지 않은 한, 동일 문장 내의 음운구들은 한 억양구를 이룬다. 또한 음운구에서처럼 다분지이며 방향성에 대한 제약도 없다. 다음은 억양구에 의해 그 의미가 변별적이 되는 대립쌍이다.

(16) a. 나는 / 준호와 친구인 순호를 만났다. (준호와 순호는 친구이다)



마지막으로, 발화구는 억양구 하나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통사적으로는 거의 정의내릴 수 없다. 하나의 문장을 발화하고 나면 문장의 높낮이 형태는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우리는 국어 운율 체계의 일반적인 방법론적 원칙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국어의 운율체계를 수립했다. 요약하면, 각 구조의 구성은 이 방언에서 의무적인 것이며 그 각각의 운율적 구조는 기저의 성조를 근거로 하여 파생적으로(derivatively) 자연히 세워진다. 특히 어휘부에서는 이분지와 방향성의 제약이 지켜지며, 각 구조의 종류 및 중심요소, 수식요소 등은 그 연결선의 모양과 마디만으로 충분히 구별이 된다. 요약하면 경복방언의 초분절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 3. 제 운율변동 규칙들과 운율 구조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계층적으로 중심요소와 수식요소를 연결하여 세워나간 국어 운율 구조 수립의 방법론은 운율 변동 규칙들을 그 음운론적 동기가 주어지도록 기술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지녔다. 이 절에서는 이미 세운 운율 구조를 바탕으로 국어의 대표적인 운율 법칙이 적용되는 것을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음운단어와 음운구가 리듬 법칙이 적용되는 음운단위이며, 억양구가 억양법칙이 적용되는 음운단위임을 보일 것이다.

경북방언에서는 어휘부 혹은 후어휘부의 각 단계에서 단어들이 기저 성조를 지닌 채 결합하므로 그 결합과정에서 여러 복잡한 성조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방언성조 변화의 규칙성을 포착하기 위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었지만 (Kim G-R.(1988), 줄고 (1990) 등), 변동의 정교한 규칙들을 세우는 데에만 치우쳐, 기술적(descriptive) 설명력은 지녔을 지 모르나 이 현상에 근본적인 설명은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의존 음운론 내에서 중심성(headness)과 상대적 둔들림을 포착하기 위해 운율적 구조를 구성해 나가는 이 접근법에서는, 성조변동의 현상들이 운율구조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것으로 존재한다. 먼저 다음의 예들을 보자.

- (18) a. /k'och-path/ → [k'otp'at] 꽃밭,      /cip-tali/ → [cipt'ari] 집들이  
           H    H                    L    H                    H    H                    L    H L  
       b. /san-nophko/ → [sannophk'o] 산높고,      /khog-pokko/ → [khogp'okko] 콩볶고  
           H    H                    L    H    L                    H    H                    L    H L

이 예들은 기저의 고성조들이 한 음운단어 혹은 음운구 내에서 두 군데에 나타나서 고성조 충돌을 일으킬 때에, 앞의 고성조가 탈락하여 음운단위 내에 하나의 핵을 세우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성조변동규칙으로 줄고(1990)에서 제시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Han 1990:210)

#### (19) a. 리듬규칙 (Rhythm Rule) (1)

$$\begin{array}{c} H \rightarrow \phi / V ] [ (V_1) V \\ \quad \quad \quad | \quad \quad \quad | \\ \quad \quad \quad \text{---} \quad \quad \quad H \end{arr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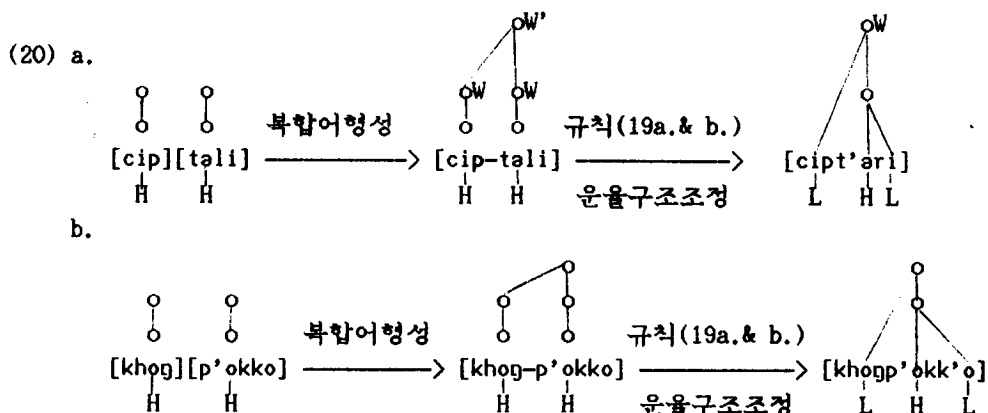
#### b. 부재자질 L-삽입규칙 (Default L-insertion Rule)

$$\begin{array}{c} (V)^3 \rightarrow V \\ \quad \quad | \\ \quad \quad L \end{array}$$

이제 이 현상들을 의존음운론의 견지에서 생각해 보자. 본 논문에서는 리듬규칙을 음운단어와 음운구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결국 하나의 음운단위 안에 하나의 중심요소만을 세우기 위한 노력, 즉 두 개의 H가 있으면 두개의 음보로 인해 중심요소가 두 군데 투사(project)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단위 내에서 하나의 H를 없애려는 노력이 바로 이 리듬법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기저의 고성조와 성조변동규칙들을

3. ⑦는 성조를 부여받지 못하여 비어있는 성조소지단위를 가리킨다.

근거로 하여 위 (18)의 운율적 구조들을 도출시켜 보자. 여기서부터는 음보 내의 표시는 생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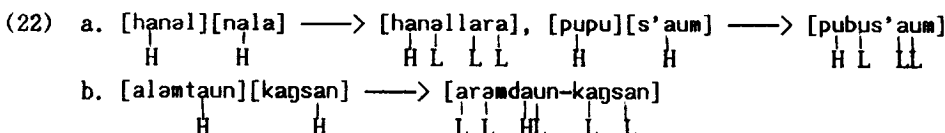


또한 경북방언에는 두개의 고성조의 연속에서 두번째 고성조를 탈락시키는 규칙도 있다.

(21) 두번째 H 탈락규칙 (Second H Deletion Rule) (리듬규칙 (2))

$$H \rightarrow \emptyset / [H] \text{ [ \_\_\_\_\_\_ ]}$$

(21)은 여타규칙(Elsewhere Condition (Kiparsky 1981))에 의해 (19a)보다 먼저 적용된다.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은 음운단어와 음운구에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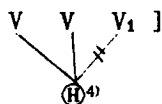


이 밖에도 이 방언에는 어두 연속 2음절에 고성조가 실현되는 예들이 있는데, 이들은 기저에서 연결되지 못하고 부유하고(floating) 있던 고성조가 성조연결규약(Tone Association Convention)에 의해 모든 음절에 연결되고 난 다음에 세번째 고성조부터 그 연결선을 끊어주는 또 다른 규칙에 의해 설명되는 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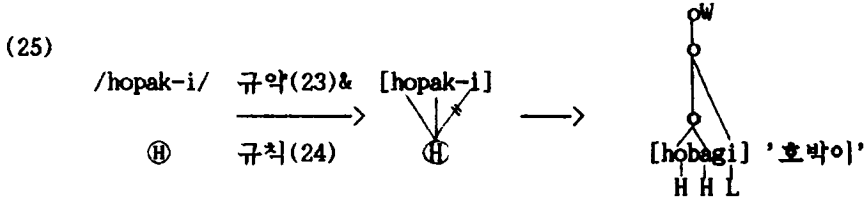
(23) 성조연결규약 (Tone Association Convention)

부유성조 H를 첫번째 성조소지단위에 연결시키고, 이 연결된 H를 오른쪽으로 모든 성조소지단위에 전파시켜라.

(24) 세번째 H 탈락 규칙 (Third H Deletion Rule)(리듬규칙 (3))



이것은 앞서 논의한 리듬규칙들과는 별개의 음운규칙인 듯 하나 그 기능적인 역할을 보면 이들과 같은 맥락의 규칙이다. 설명하자면, 연결규약으로 생긴 고성조 연속체들은 상대적인 높이 차이가 없으므로 그 단위 내에 중심요소가 존재하는 음보를 수립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대적 돌돌림을 실현시키기 위해, 다시 말하면 한 음운단위 당 하나의 핵이 있는 리듬 패턴을 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규칙이라는 것이다. 다음의 예는 기저에 부유성조를 지닌 단어 '호박'에 기저성조가 없는 주격조사 '이'가 연결된 형태에 성조형이 실현되는 것을 보인 것이다.



이상에서 소개한 성조규칙들 (19)(21) 및 (24)는 경북방언의 복잡한 성조 변동 현상들을 설명하기에 거의 충분하다. 크게 보아서 모두 리듬 규칙으로 볼 수 있는 이들은 음운단어와 음운구를 적용 영역으로 하는 규칙들로서 한 단위 당 핵을 한 군데로 하는 리듬법칙을 실현시키는 데 필연적인 것이다.

이제 음운구보다 상위 단위인 억양구를 적용 영역으로 하는 억양법칙들을 논의할 차례이다. 이 억양구는 리듬법칙의 영역은 아니므로 한 억양구 당 중심요소가 음운구 수 만큼 나올 수 있다. 억양구에서는 그 경계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이 특징적이다. 즉 억양구말 장음화(intonational phrase-final lengthening)와 장음화된 억양구 끝음절에서 실현되는 경계성조 삽입(boundary tone insertion) 현상이 있다. 이것은 억양구 경계에서는 다른 어떤 음운론적 단위에서보다도 분명하고도 긴 휴지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억양구 끝음절의 길이가 앞의 다른 음절보다 길어지는 것은 실현 음성학적으로 자주 관찰되어진다(구희산 1987, 지민재 & 이용주 1990 등). 이것을 규칙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26) 억양구말 장음화 (I-Phrase Final Lengthening)

V → V: / \_\_\_\_\_ ]IP

여기서 억양구 말음절이 고성조를 지닌 음절일 때에는 이 위치에 저성조가 삽입되어 하강조(falling tone)를 낳는 것이 경북방언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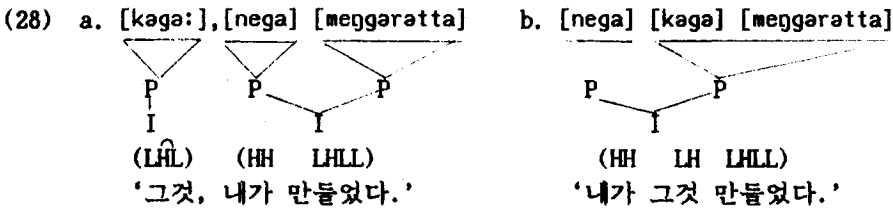
#### (27) 저성조 삽입(L-tone Insertion)

∅ → L / H \_\_\_\_\_ ]IP

사실상 경북방언에서 모든 하강조는 장음절에서 실현되고 있으므로(예를 들면, 잡<sup>ㅅ</sup>이: 다, 선<sup>ㅅ</sup>삼:, 돌<sup>ㅅ</sup>배: 등), 장음화된 억양구 말음절에 저성조가 삽입되는 위 규칙은 그 동기를 부여받는다. 다음은 (26) 및 (27)이 차례로 적용된 결과이다.

4. Ⓜ는 부유(floating) 성조로서 성조연결규약에 의해서만 실현된다.

5. 이것이 서울 중부 방언에서는 상승조(rising tone)로 나타나는 것이 흥미롭다.



(28a)에서는 첫번째 음운구가 독립된 억양구를 이루어 장음화와 하강조가 실현되었지만, (28b)에서처럼 보다 큰 단위인 억양구 속으로 통합되어 들어가 억양구 끝 자리를 잃게 되면 동시에 그 억양구 끝에서 누렸던 길이 증가도 사라지고 평성조 그대로 실현된다. 물론 여기서도 후어획부 음운부의 특징인 말의 속도 및 개인적인 발음 양식 등의 언어수행적 요소가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억양구들의 집합체이며 문장 단위의 가장 큰 음운단위인 발화구가 있다. 발화구 내에서도 억양구에서처럼 끝 억양이 중요하다. 그것은 발화구가 전달하는 대부분의 의미 내지는 정보, 이론테면 문법 정보, 화용론적 정보, 다양한 태도와 감정에 관한 정보들이 발화시의 맨 끝 억양구 음절에 놓이는 높낮이 형태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화구 끝 억양이 전달하는 모든 중요한 기능과 의미를 기술하는 것은 본 논문에서 다루기에는 그 내용이 방대하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sup>6)</sup>

#### 4.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국어 운율구조 수립의 방법론의 원칙을 의존음운론의 틀에서 세우고 이를 토대로 국어의 운율구조를 세웠다. 의존음운론에서는 구성관계(constituency)와 상대적 돌출됨(relative prominence)을 동시에 정해주는 표시로서 초분절적 운율구조를 수립해 나간다.

먼저 음운 단위 구조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음절간의 상대적 돌출됨을 표시하는 음보라는 단위의 필요성을 논의하였고, 이어서 음운단어, 음운구, 억양구, 발화구를 차례로 세웠다. 중심요소와 수식요소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그 수식의 방향 및 각 마디의 내포성 등을 살피면 그 운율적 범주를 알 수 있고, 또 그 의존관계로써 가장 돌출되는 중심요소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접근법은 경북방언 사용자의 직관과도 일치한다.

또한 여기서는 여러 복잡한 성조변동 규칙들을 음운단어와 음운구 및 억양구를 적용 범위로 하는 운율 법칙들로 재조명하였다. 결국 고성조를 탈락시키기 위해 세운 기존의 여러 고성조 탈락 규칙들은 운율구조와 관련된 기능적인 측면에서 음운단어와 음운구에서 한군데의 핵만을 만들기 위해 적용되는 리듬규칙으로 단순화 시켰으며, 경계 위치에서의 긴 휴지와 함께 길이와 성조변화로 억양을 두드러지게 하는 억양법칙은 억양구를 그 적용단위로 취한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음절에서부터 발화구에 이르기까지 계층적으로 구조를 세우는 이 방법론은 각각의 음운단위와 관련되는 성조, 리듬 및 억양의 상관관계를 효과적으로 기술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6. 문장 끝 억양의 문법 기능과 화용론적 행위의 수행 기능 등의 논의는 이 호영 (1990)을 참고할 것.

## 참고문헌

- 이 승녕 (1960). 현대 서울말의 악센트 연구. 「국어학논고」 3-80. 동양출판사
- 이 현복 (1974). 한국어 리듬의 음성학적 연구 「말소리」 4, 31-48. 대한 음성학회.
- 이 호영 (1990). 한국어의 운율구조와 통사-의미구조와의 관계. 「제 2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발표 논문집」 57-64.
- 지 민재, 이 용주 (1990). 한국어 pause pattern의 음향음성학적 분석. 「통신처리를 위한 음성정보 변환기술 개발」 86-88.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Anderson, J.M. (1986). Suprasegmental Dependencies. In J. Durand, ed. *Principles of Dependency Phonology* (1986), 55-134.
- Anderson, J.M. & Durand, J. Dependency Phonology. In J. Durand, ed. *Principles of Dependency Phonology* (1986), 1-54.
- Crystal, D. (1985). *A Dictionary of Linguistics and Phonetics* (2nd edition). New York: Blackwell.
- Durand, J. (1986). *Dependency and Nonlinear Phonology*. Croom Helm Linguistics Series.
- Ewen, C. (1986). Segmental and Suprasegmental Structure. In J. Durand, ed. *Principles of Dependency Phonology* (1986), 203-222.
- Han, S.H. (1990). *Prosody in Lexical Phonology: Cases of English and Korean* Ph.D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 Kim, G.R. (1988). *The Pitch-Accent System of the Taegu Dialect of Korean with Emphasis on Tone Sandhi at the Phrasal Level*,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 Kiparsky, P. (1982). Lexical Morphology and Phonology.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oul: Hanshin, 3-91.
- Koo, H. S. (1986). *An Experimental Acoustic Study of the Phonetics of Intonation in Standard Korean*, Seoul: Hanshin.
- Pulleyblank, D. (1983). *Tone in Lexical Phonology*. Ph. D dissertation, MIT. Republished under the same title in 1986. Dordrecht: Foris.
- Selkirk, E.O. (1980). The Role of Prosodic Categories in English Word Stress. *Linguistic Inquiry* 11, 563-605.

대림전문대학 실무영어과

Email: shhan@cosmos.kaist.ac.kr

우편번호: 430-715